인문연구 제8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8. Vol. 83, No. 1, pp.313~338
http://dx.doi.org/10.21211/JHUM.83.10

지식의 유형과 지식 지형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방법론*

김경남**

〈차 례〉

1. 서론
2. 지식 분류와 지식 분류학
3. 지식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4. 지식의 지형과 속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식의 분류와 유형화 작업을 통해 지식 지형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법'은 연구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지형 연구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및 연구자의 태도를 논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의적으로 사용하는 '지식' 개념을 인문학적 차원에서 "대상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나 인지, 또는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앎의 상태"로 규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유형화·체계화·위계화하여 지식의 지형을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을 통해 지식의 사회적 영향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초 작업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지식 생산과 전파, 유통과 수용 등의 기본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특정 시대와 사회의 지식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 및 그에 작용하는 지식의 권력적 속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지식, 분류, 체계, 인문학, 태도, 영향력, 지식 지형

1. 서론

지식이란 대상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나 인지, 또는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앎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지식 개념과는 달리 학문과 종교, 예술 등과 같은 인간의 모든 의식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지식 개념은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철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지식 개념과 역사학이나 문학, 교육학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같은 데서 출발했을지라도, 실제 이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와 범위는 같지 않다. 이 점에서 허재영(2018)에서는, 지식 개념과 관련된 다수의 논의를 검토한 뒤, 철학 사전류에 근거하여 "지식은 사물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학문적 진리를 지칭하는 이론이나 법칙도 넓은

의미의 의식 범주의 일종이며, 의식이 궁극적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낳은 근본 요인이자 지식의 기능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지식 개념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지식의 형성과 발전, 지식의 영향력 등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도로, 지식을 수집하고 분류하며,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유형과 지식 지형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전제로, 분류학적 관점에서 지식을 유형화하는 방안과 지식 지형 연구 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분류란 유사한 것을 묶어 종류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논리학에서의 분류는 유개념의 외연에 포함된 종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분류는 개념의 형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인간의 인지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고대부터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지』로부터 헤겔의 『엔치클로페티』까지, 『여씨춘추』부터 『사고전서』에 이르기까지 분류사를 논하고자 했던 구가 가쓰토시(久我勝利, 2006)의 『지식의 분류사』(한국어판 김성민 역, 2009,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 따르면 선사시대나 고대에도 분류 의식이 존재했고, 로마시대에는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지식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분류는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대상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문헌분류를 대상으로 한 김포옥・백항기(2009)에서는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개념과 종개념',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동위개념', '모순개념과 반대개념', '이류(異類) 개념과 상관 개념', '교착(交錯) 개념과 선언(選言) 개념',

‘동일 개념과 동연(同延) 개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상관관계는 대상을 종류로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류 개념을 지식에 적용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분류 대상인 ‘지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곧 ’지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이다. 이 문제는 지식 분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일률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문헌학자의 경우 문헌만을 분류 대상으로 삼고, 철학자의 경우 인간의 사고 전반을 대상으로 삼는다. 실증 사회과학자들의 지식은 그들이 연구하는 사회과학지식이다.

분류 지식의 다양성은 지식 분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박옥화(1992)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 지식 등장부터 학문이 분화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분류 체계가 있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명규(2000)에서는 베이컨의 분류와 사고 전서를 대상으로 동서양의 지식 분류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지식 분류와 관련한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로부터 베이컨에 이르기까지의 철학 담론뿐만 아니라 지식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마르크스, 콩트, 셸러 등은 지식의 분류와 유형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힌 바 있고, 동양에서도 다양한 문헌 분류의 전통과 함께, 유서(類書) 형태의 지식 분류가 시도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지식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식의 분류와 유형에 대한 논의는 문헌정보학, 지식 사회학, 철학과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희정(1995), 강인태(2004), 김정경(2005) 등의 박사학위 논문이나, 정영미(1997), 설성수(2000), 김상환(2014), 정연경(2017), 양재한(2014) 등의 저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식의 분류와 유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터 버커, 박광식 옮김(2006), 구가 가쓰토시・김성민(2006) 등의 번역서도 지식 분류와 관련하여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학술지 논문

가운데 김옥희·남태우(1994), 이명규(2000), 이혜민(2016), 이정우 외(2014), 손윤락(2016), 이재봉(2009) 등과 같이 지식 분류의 방법이나 역사 등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 것도 지식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지식의 유형과 지식 지형을 연구하는 데 전제가 되는 지식 분류학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분류해야 할 지식의 성격, 분류의 기준 등이 지식 유형과 지식 지형의 변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지식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의 유형 설정 방안과 지식 지형의 형성 및 변화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지식의 유형은 전반적인 지식을 구조화하는 기초 작업에 해당하며, 지식 지형은 특정 유형의 지식 분포와 영향력(지식 권력), 지식의 변화 양상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2. 지식 분류와 지식 분류학

지식 분류학이라는 용어는 국내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저술 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용어이다. 이 용어가 사용된 예는, 현재 활발하게 지식 담론을 전개하고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터 버크가 지은 『지식 -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학술어의 명사 대신 '지식의 분류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도 지식의 분류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지는 않았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문화

1) 피터 버크 지음, 박광식 옮김, 『지식-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 현실문화연구, 2006, pp. 147-157.

인류학자들의 분류체계와 근대 서구의 지식 범주가 다르고, 공개된 지식과 은밀한 지식의 구별이 있으며, 교양적 지식과 실용적 지식, 전문적 지식과 종합적 지식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버크의 지식 분류학은 객관적인 이론이라기보다 지식 담론을 전개하는 사유 형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비록 1300년경 라몬 룰에 의해 그려졌다는 '지식의 나무'를 비롯하여 현대의 학문 체계를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2]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류하고자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식 분류의 전제 조건인 '분류'란 무엇인가? 에릭 헌터, 박지영 옮김(2015)에서는 "근본적으로 분류 과정이란 유사한 것들의 공통의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묶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김포옥·백항기(2011)에서는 분류가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을 공통의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묶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류는 '피분류체(분류 대상)', '분류 원리', '분류지'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피분류체는 '명확한 성질(내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총괄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종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어야 한다.[4] 이 말은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 즉 지식을 분류하고자 할 경우 '지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 개념은 분류하고자

---

2) 라몬 룰의 『지식의 나무』는 1300년경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653년 재인쇄본이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피터 버크, 박광식 옮김(2006) 위의 책, p. 153 참조.

3) 에릭 J 헌터, 박지영 옮김, 『분류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5. 지식의 구조화와 검색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이 책의 분류론에는 특정 상황 관련 정보를 채우기 위한 패싯(facet, 다면체의 한 단면) 분류를 비롯하여 계층적 분류, 열거형 분류 등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4) 김포옥·백항기, 『문헌분류론』, 조은글터, 2011, p. 28.

하는 각종 지식을 포괄해야 하고, 분류 결과에 해당하는 각종 분류지(지식을 분류한 결과, 즉 지식의 유형)가 갖는 종개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분류의 원리는 단 한가지로 유일해야 하며(일관성 있는 적용), 원리가 명확해야 하고(교착되지 않음), 분류 목적과 흥미에 따라 적합하게(적합성)'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을 분류한 역사를 살펴볼 때,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 의견은 없다. 박옥화(199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의 경우 자연과학적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이 태동하고, 소피스트와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이 등장하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인간 중심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이 확장된다. 이러한 지식 확장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의 지적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논어』에 등장하는 '지(知)'의 개념과 각종 유서(類書)에 등장하는 '지(知)'의 개념이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지식은 '대상(사물)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라는 뜻을 갖는다.[5] 이 명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인식' 또는 '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지식의 탄생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한 이상오(2016)에서 '인식론'을 '지식에 관한 이론'으로 환치한 것도 지식 개념이 인식과 유의어로 쓰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어원적으로 인식론은 '지식', 또는 '참된 앎'을 뜻하는 에피스테메(episteme)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할 때, 지식과 인식은 동일 범주의 개념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인식의 방법 또는 과정으로서 '관찰', '경험'이 중요하며, '이성', '분석과 종합' 등의 사고가 지식 산출의 근원이 되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지식 분류사에서 종교나 신화, 상상력과 관련된 다수의 인간 활동 등을

5) 허재영, 「지식 생산과 전파 수용에 따른 지식 권력 연구 방법론」,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pp. 177-204.

지식의 범주에서 제외한 경우는 없다. 즉 인식의 문제는 대상을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 자체를 깨닫는 일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분류 대상으로서 지식 개념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상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기본으로 할 때, 지식의 근원이 되는 '대상'을 망라할 수 있는 지식 분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식의 분류사는 이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지식 분류사와 관련된 구가 가스토시, 김성민 옮김(2009)에서 박물학적 지식 분류와 함께 대표적인 분류사의 하나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든 까닭은 지식 분류가 지식을 종합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마다 번역 용어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가 가스토시가 밝힌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이론학', '실천학'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분류」

분야			저작물
논리학(Organon)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토피카(Topica), 궤변논박
이론학	자연학	물리학	자연학, 천체론, 생성소멸론, 기상학, 우주론
		심리학	영혼론, 감각과 감각되는 것에 대해, 기억과 상기에 대해, 수면과 각성에 대해, 꿈에 대해
		생물학	동물지, 동물부분론 외, 식물지(현전하지 않음)
	수학		해당 저작 없음
	제1철학		형이상학
실천학	윤리학		니코마코스윤리학, 대도덕학, 에우데무스윤리학, 덕과 악덕에 대해
	정치학		정치학, 경제학
	제작술		변론술,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분류에서 '논리학'과 '제작학'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소광희(1994), 손윤락(2016)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분류가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의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구가 가스토시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가 가스토시는 '논리학'에 해당하는 '오르가논'이 '도구'의 뜻을 담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범주론』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규명할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할 10개의 범주(실체, 성질, 양, 관계, 능동, 수동, 장소, 시간, 상황, 양태)를 포괄하는 점에서 '제작학' 대신 '논리학'을 대표적인 범주의 하나로 제시하였다.[6] 이에 비해 소광희(1994), 손윤락(2016) 등에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앎)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이론적인 것, 실천적인 것, 제작적인 것'으로 나눈 것이다.[7]

지식 분류의 예는 중세의 신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가 가스토시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르톨로메우스[8]의 『사물의 속성에 관하여』는 '신, 천사, 인간의 영혼, 인간의 신체, 인간의 신체 부분, 인간의 연령층, 인간의 질환, 땅과 천체, 시간, 물질과 형상, 공기, 새, 물, 세계와 산, 여러 지역, 돌과 금속, 나무와 식물, 동물, 기타' 등과 같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모든 것을 '사물'에 포함시켰다.[9] 또한 12세기 저명한 스콜라 신학자인 위그

6) 후대 프랜시스 베이컨이 귀납과 관찰을 중시한 지식 탐구의 원리를 저술하면서 『신기관(Novum Organum)』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기관(Organum)』과 대비된다. 프랜시스 베이컨 저, 진석용 옮김, 『신기관』, 한길사, 2011.

7)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분류에서 '논리학'과 '제작학'에 대한 견해는 일치해 있지 않다.

8) 바르톨로메우스(1220년경 ~40년경)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소속의 백과사전 편찬자이다. 잉글랜드, 파리, 독일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사물의 속성에 관하여』는 대표적인 백과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9) 구가 가쓰토시, 김성민 옮김, 『지식의 분류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9, pp. 1-89.

(Hugues de Saint Victor)의 학문 체계나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등의 지식 체계에서도 분류 대상으로서의 지식 속에 '신', '영혼'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처럼 지식 분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분류 대상으로서의 지식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확장되며, 이에 따라 가시적, 실증적 대상 이외에 종교적, 형이상학적인 것이 모두 포괄된다.

분류 대상 지식이 포괄적이라는 사실은 분류 기준이나 체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식 담론이 특정 시대와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포괄적 지식 담론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을상(2011)에 따르면, 지식의 형태와 사회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 셸러는 콩트의 지식 형태를 기준으로, 인간의 인지 양식에 따른 세 가지 범주의 지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셸러의 지식 유형[10]」

인지양식	동기	지식 습득의 원천과 방법	이념형적 지도자	사회형식	사회적 기원
종교	구원을 통한 자기 유지	신과의 접촉을 통한 구원	카리스마적 지도자, 신성한 사람, 성직자, 종교인	교회 종파 공동체	계급
형이상학	세계와 사물에 대한 의심	본질 직관을 통한 지혜	현명한 사람, 현자	학교	직업
실증과학	자연과 사회에 대한 통제 욕구	실험, 연역, 귀납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학적 상징의 세계상	연구자, 학자	국제적 과학 공화국	신분

10) 이을상, 막스 셸러의 지식 사회학 : 그 철학적 토대와 전개, 『지식의 형태와 사회1』, 한길사. 2011, p. 19.

셸러의 지식 유형은 '무엇에 대한 앎'인가뿐만 아니라 '동기', '습득의 원천과 방법', '이념형적 지도자', '사회형식' 등의 사회적 요인 또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들이 고려된 점이 특징이다. 지식을 '종교', '형이상학', '실증과학'으로 분류하여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 전반을 포괄하고자 한 점도 특징이다.

지식의 대상이나 성격을 고려한 분류에서 논리실증주의 철학자 라일(Ryle, 1949)의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의 구분은 철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빈번히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상호(2016)에서는 '명제적 지식'을 세분하여 '사실적 지식', '논리적 지식', '규범적 지식'으로 나누고, '방법적 지식'을 '경험적 지식', '선험적 지식', '과학적 지식', '소통적 지식', '반성·성찰적 지식', '비판적 지식', '직관·각성적 지식', '합리적 지식', '종교적 지식'으로 세분하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개념은 사회과학자나 교육학에서도 준용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지식'의 개념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절차적) 지식'으로 설정한 것도 지식의 성격을 전제로 한 것이다.[11] 이처럼 분류 사례를 종합할 때, 지식 분류를 위해서는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 지식을 명료하게 설정해야 하며, 분류 기준을 확정하고, 단순 열거가 아닌 계층적이고 상황에 맞는 분류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

11) 교육부,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2011, pp. 28-29.

12) 남태우, 『지식의 구조1』, 한국도서관협회, 2015, pp. 39-40. 이 책에서는 Ernest C. Richardson가 설명한 공통적인 분류법의 유형으로 '논리적 분류법, 기하학적 분류법, 연대기적 분류법, 발생론적 분류법, 역사적 분류법, 진화론적 분류법, 역학적 분류법, 자모순 분류법, 수학적 분류법' 등이 있음을 소개한 바 있다. 지식 분류에서도 이러한 분류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분류 대상 지식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분류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3. 지식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지식의 유형은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분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설정한 지식의 형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 지식의 유형은 분류 결과로 도출해야 할 연구 과제에 해당한다. 지식 분류학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지식의 유형은 '대상 지식의 범위', '지식 산출의 방법(원천)', '지식의 성격' 등을 고려한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분류하고자 하는 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고려한 분류이다. 이 분류는 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분류학의 일반적인 논의나 지식 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그다지 많은 논의가 진척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가 가스토시의 『지식의 분류사』에 간략히 정리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거나 셸러의 『지식의 형태와 사회』, 또는 지식 구조와 관련한 남태우(2015)의 비교적 방대한 저서 등에서 분류 사례나 원칙, 방법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분류해야 할 지식이 어떤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플리니우스의 『박물학』, 중국 진나라 무제 당시 장화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박물지(博物志)』, 송대의 축목과 원대의 부대용·축연 등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사문유취(事文類聚)』 등과 같이 눈에 보이거나 전해 내려오는 인간사를 수집하여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와 아리스토텔레스, 위그, 베이컨, 백과전서파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 또는 학문지의 분류 방식, 근대 학문 성립 이후 각 학문 분과를 중심으로 한 지식 분류 방식 등이 동일한 범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철학적 지식 개념에서 강조하는 '의식', '사고'를 지식 범주에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지식 사회학자들은 시대와 사회에 영향을 받는 지식

의 이데올로기성[13]을 간파하고, 이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고'를 계급(신분, 직업을 포함하여)의 구조와 연계하여 유형화하고자 한 셸러의 시도는 지식에 대한 계급적 인식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식 범주 설정도 계급적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시대와 사회마다 주류 지식과 비주류 지식의 구분 또는 지식이 갖는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곧 지식 지형의 변화)을 내포한다.

「셸러의 사고 유형[14]」

하층계급	상층계급
가치 전망주의	가치 회고주의
형성고찰	존재고찰
기계적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
현실주의(현저히 저항으로서의 세계)	관념론(현저히 이념왕국으로서의 세계)
유물론	정신주의
귀납·경험주의	선험지식, 합리주의
실용주의	지성주의
낙관적 미래관과 비관적 회고	비관적 미래관과 낙관적 회고
모순을 추구하는 사고방식 혹은 변증법적 사고방식	동일성을 추구하는 사고방식
환경론적 사고	생득설적 사고

13) 카를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김영사, 2012. 이 책에서 만하임은 시대와 사회의 영향을 받는 지식의 속성을 '존재 제약성'이라고 표현한다.

14) 전태국, 『지식 사회학-지배·이데올로기·지식인』, 사회문제연구소, 2001, p. 290. 이을상, 막스 셸러의 지식 사회학: 그 철학적 토대와 전개, 『지식의 형태와 사회1』, 한길사, 2011, p. 21의 10가지 유형을 표로 다시 정리함.

계급을 기준으로 한 사고 유형의 특성은 그 자체가 이분법적 대립의 한계와 편견을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고의 유형이 지식 사회학적 관점에서 지식 유형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 분류와 유형화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식의 유형에 관한 방대한 연구는 남태우(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권에서 지식의 조직화와 관련한 분류 원리, 문헌 분류법, 지식 분류사를 종합한 뒤, 권2~3에서는 시대별 지식 구조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2권의 지식 구조론 발전사에서는 고대의 지식 구조론으로 베다(Veda), 그리스 지적 전통,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지식 구조론을 소개하고, 중세 스콜라 학파와 보에티우스, 초기 대학교,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지식 구조론을 설명하였다. 권3의 근대 지식 구조론에서는 베이컨, 홉스, 코메니우스,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 백과사전파, 칸트, 헤겔, 콩트, 마르크스 등의 사상가들의 지식 구조론을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현대의 지식 구조론으로 윌슨, 분트, 퍼어스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지식론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 실용주의 철학자인 퍼어스(Charles S. Peirce)의 '실제적 학문'과 '이론적 학문'의 분류 체계는 지식 산출의 근원인 제반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분류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된다. 대상 지식과 범위를 준거로 한 열거식 분류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연구 분야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이나 어휘 사전을 편찬할 경우 사용하는 전문 분야, 또는 전문 용어 분류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분류법은 고대의 박물학적 잡학 분류와 같이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열거할 수 있지만, 체계를 설정하고 영향력 있는 지식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둘째, 지식의 산출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리틀 존이 지식 습득의 원천에 따라

‘발견으로서의 지식’, ‘해석으로서의 지식’, ‘비판으로서의 지식’을 나눈 것[15]은 이 기준을 고려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발견에 의한 지식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보편화된 방식이다. 발견은 우연적인 것도 있으나 의도적인 관찰에 의한 것도 있다. 과학적 지식으로 불리는 상당수가 관찰에 따른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해석에 의한 지식은 지식을 산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유용한 지식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거쳐 산출된 지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리틀존은 “해석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인식적이거나 또는 실용적인 목표들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고 이해, 조작, 중재, 교육 및 이행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해석 방법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비판에 의한 지식은 한 사람의 해석에 의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된 지식을 말한다. 비판 과정에서 비판의 준거를 바르게 설정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치는 일은 유용하고 가치 있는 지식 산출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 된다.

다소 용어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식 산출에 따른 유형화 작업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이상오(2016)에서는 산출 방법 대신 ‘원천’을 준거로 ‘감각-관찰과 경험’, ‘신화’, ‘이성’, ‘믿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식 산출의 근원이 감각과 경험뿐만 아니라 선험적이거나 신념에 의한 것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이상오(2016)에서는 철학에서의 인식론이 지식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16], 인식과 지식의 상관성을 논증한 뒤,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았다.

---

15) 리틀 존 · 김흥규 역, 『커뮤니케이션이론』, 나남출판, 1996. pp. 20-23.

16) 어원적으로 인식론을 뜻하는 epistemology는 ‘지식, 참된 앎, 이해’를 뜻하는 그리스어 episteme에 학문을 뜻하는 logos가 합쳐진 말이다. 곧 인식론은 ‘지식에 관한 이론(the theory of knowledge)’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식의 근원은 '관찰·경험적 차원', '경험·실험적 차원', '경험·논리적 차원', '이성·선험적 차원', '분석·종합적 차원', '생성·구성적 차원' 등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 유형화가 지식 유형을 모두 포괄하거나 배타적으로 다른 유형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 산출의 근원으로서 인식의 문제를 유형화하는 준거로 적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다.

셋째, 지식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기준인 '지식 산출의 방법'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상오(2016)에서 지식 개념의 성립에 '믿음주의', '이상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실용주의' 등이 존재한다고 한 유형화 작업도 이러한 분류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성격'이나 '성질'이라는 용어의 내포 의미가 다소 복잡할지라도 이 두 용어가 '본질' 또는 '특징'을 지시한다고 할 때, 특정 지식이 갖고 있는 성질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실증사회학을 개척한 콩트가 지식 3단계설(신학적 → 형이상학적 → 실증적 지식으로의 진보 단계)을 주장한 것이나 다수의 진화론자들이 지식의 위계를 주장한 것도 지식의 성격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펜서가 학문의 체계를 '추상적 학문(수학, 추상 역학)', '추상적·구체적 학문(구체 역학, 물리학, 화학)', '구체적 학문(천문학, 지질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등으로 구분하고, 콩트의 3단계설보다 세분화된 5단계설을 주장한 것도 지식의 성격을 고려한 유형화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17]. 이에 따르면 지식은 제1단계 "직접적으로 자기 보존에 이바지하는 활동에서 얻어진 것", 제2단계 "간접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획득하는 활동", 제3단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제4단계 "적절한 사회적, 정치적 관

17) 남태우, 『지식 구조론 제3권(근대·현대편)』, 한국도서관협회, 2015. 지식 3단계설은 이 책 p. 377, 5단계설은 p. 402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 제5단계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과 취미, 심미적 탐구, 감정의 만족을 위한 활동" 등과 같이 학문 발생의 동기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논자들이 지식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준거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식 분류학이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열거하는 일부터, 지식의 발생과 진보, 또는 지식의 중요도에 따라 지식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구조와 위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수단이라는 철학적 정의를 고려한다면, 박물학적 지식 나열보다 구조와 위계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조화와 위계화는 분류 과정에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등의 방법론이나 특정 지식에 대한 중복 분류 등의 세부 작업을 거쳐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4. 지식의 지형과 속성

지식의 구조와 위계를 파악하는 일은 인간의 존재 가치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이 점에서 인문학자들의 지식 담론 못지않게, 사회학적 차원에서도 지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 이른바 지식 사회학자로 불리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식과 사회, 역사와의 관련성 등과 같이, 지식이 갖는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식의 사회성과 역사성에서 주목할 일의 하나는 분류한 지식의 분포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일이다. 이때 분포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지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지형이란 땅의 생김새, 지리적인 형세를 의미

하는 단어이다. 지리학에서 지형의 특징과 분포를 중심으로 '지형도'를 산출하듯이, 지식 담론에서도 지식의 유형과 분포,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지식 지형도'를 그려내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식 담론에서 지형에 대한 논의는 유형별 지식의 분포와 변화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김수영(2011)에서 논의한 것처럼 '전문 지식'이나 '전문가 집단'이 형성된 것을 지식 지형의 하나로 기술하는 경우나, 박치완(2014), 예성호(2017)에서 학문을 분류하고 서지적 빈도를 측정하거나 지식의 확산 정도[18] 등을 준거하여, 분포상의 특징 또는 변화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 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지식 지형의 논의 범위는 대상 지식의 범주에 따라 다양하다. 김일권(2016)과 같이 농업사 관련 지식의 주된 흐름과 관련된 지식 지형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고, 조성산(2016)의 19세기 조선의 주자학의 분열상을 지형의 관점에서 설명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지식 담론에서 '지형' 논의는 지식의 존재 형태나 내용에 대한 분포보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 또는 이와 관련된 현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향이 농후하다.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리적·실용적 지식'과 '교양적·도덕적 지식'으로 구분하고자 했던 김필동(2003)에서는 지식이 앎 자체에 대한 지식 소유자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도덕적·문화적 힘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시대, 특정 사회가 어떤 기능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는가는 지식의 생산·분배·소비 구조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해 준다."라고 주장한다.[19] 이러한 논리는 지식이 권

18) 예성호, 「중국의 한국학 지식 지형도 연구」,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17, pp. 101-115. 이 논문에서는 확산 정도를 기준으로 지식을 '개인적 지식', '집단적 지식', '사회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19) 김필동, 지식 변동의 사회사-그 과제와 방법, 한국사회사학회 엮음, 『지

력과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띨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정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그 지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전파와 수용' 또는 '학맥 형성' 등과 같이 다양한 연구 주제를 형성한다. 비록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근대 시기 다양한 지식 담론에서 이른바 '신학문(新學問)' 수용의 논리적 근거가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는 논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907년 12월 유길준, 염중모, 장헌식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흥사단 취지서도 이러한 현실을 뚜렷이 보여준다.

「흥사단 취지서」

國民의 文明進取하는 步趣는 其知識의 啓발과 道德의 修養ᄒᆞ는 程度를 隨ᄒᆞ야 高下가 形ᄒᆞ며 遲速이 現ᄒᆞ나니 然ᄒᆞᆫ즉 國家萬世의 大計는 國民의 知識을 啓발ᄒᆞᆷ과 道德을 修養ᄒᆞᆷ에 在ᄒᆞ고 知識을 啓발ᄒᆞ고 道德을 修養ᄒᆞ는 道는 一言으로 蔽ᄒᆞ야 敎育에 存ᄒᆞ다 謂ᄒᆞᆯ지오며 敎育에 本義는 학術의 授與와 品性에 陶冶를 主하야 人의 智能을 助長ᄒᆞ고 德義를 발揮하야 人으로 ᄒᆞ야금 人의 人되는 權利를 知케 ᄒᆞ며 人으로 ᄒᆞ야금 人의 人되는 義務를 知케 ᄒᆞ야써 人生의 幸福을 完全케 ᄒᆞᆷ에 在ᄒᆞᆫ즉 人의 人되는 道는 敎育을 捨코는 他路가 更無ᄒᆞ도다. (中略) 凡人이 學ᄒᆞᆫ즉 皆士라. 故로 普通敎育으로써 國民을 導養ᄒᆞ야 士의 根基를 定ᄒᆞᆷ이 可ᄒᆞ니 今日의 士가 古時의 士와 異ᄒᆞᆫ 所以오며 古時의 士는 四民의 一에 居ᄒᆞ야 一種特立ᄒᆞᆫ 階級을 成ᄒᆞ니 是는 當時敎育을 受ᄒᆞ야 士되기에 足ᄒᆞᆫ 知識道德을 獨有ᄒᆞᆫ 故로 其名稱을 享有ᄒᆞᆷ이나 然이나 今日에는 不然ᄒᆞ야 農商工中何業에 從ᄒᆞ던지 苟士의 知識과 道德이 備ᄒᆞᆯ진대 亦士니 何必其業務를 因ᄒᆞ야 名稱을 區別ᄒᆞ리요.(下略)[20]

식 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2003, pp. 13-27.

2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12.15. '흥사단 취지서(興士團趣旨書)'

(역문) 국민이 문명 진취하는 보무와 취지는 그 지식의 계발과 도덕의 수양하는 정도를 따라 높고 낮음이 형성되며 속도가 드러난다. 그런즉 국가 만년의 큰 계획은 국민의 지식을 계발하는 것과 도덕을 수양하는 데 있고, 지식을 계발하고 도덕을 수양하는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에 있다고 이를 것이며, 교육의 본뜻은 학술을 가르치고 품성을 도야하는 일에 중심을 두어 사람의 지능을 길러주고 덕의를 발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되는 권리를 알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되는 의무를 알게 하여 인생의 행복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으니, 사람이 사람되는 길은 교육을 버리고 다른 길이 다시 없다. (중략) 무릇 사람이 배우면 곧 모두 선비이다. 그러므로 보통교육으로 국민을 교도하고 양성하여 선비의 근본 기틀을 정해야 하니, 금일의 선비가 옛날의 선비와 다른 까닭이며, 옛날의 선비는 사민의 하나에 존재하여 일종 특별한 계급을 이루니 이는 당시 교육을 받아 선비되기에 족한 지식 도덕을 홀로 소유하는 까닭으로 그 명칭을 향유한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는 그렇지 않아 사농공 중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진실로 선비의 지식과 도덕을 갖춘다면 역시 선비이니 어찌 그 직업과 임무를 따라 명칭을 구별하겠는가. (하략)

시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식을 소유한 '사(士)'는 사회 구성원 가운데 하나의 계급적인 표지가 될 수 있으며, '흥사(興士)'의 목적이 지식과 도덕을 바탕으로 문명 진취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 담론에서 지형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지식 지형은 지식의 존재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식 유형 설정이 전제되며, 시대와 사회(또는 국가)별 지식 유형의 분포와 전파·수용 과정, 추이 등을 설명하는 용어가 될 수 있음은 틀림없다.

5. 결론

이 연구는 지식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의 유형 설정 방안과 지식 지형의 형성 및 변화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하였다. 지식의 유형은 존재하는 모든 지식에 대해 분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설정한 지식의 형태를 의미한다. 지식 분류학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지식의 유형은 '대상 지식의 범위', '지식 산출의 방법(원천)', '지식의 성격' 등을 고려한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선행 논의를 종합할 때, 지식의 유형에 대한 합일된 견해를 도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식이 '사물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그 결과로 도출된 이론이나 법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지식의 기반이나 지형도, 지식의 사회적 영향력을 기술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지형은 지식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지리학적 개념을 도입한 용어이다. 지식의 지형과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지식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하며, 지식의 유형은 지식을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설정된다.

둘째, 지식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류 대상이 되는 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명료하게 설정해야 하고, 존재하는 지식 또는 지식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수립한 뒤, 계층적이고 상황에 맞는 분류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식의 유형은 '대상 지식의 범위', '지식 산출의 방법(원천)', '지식의 성격'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와 위계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분류의 단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고려하거나 특정 지식에 대한 중복 분류 방안 등도 구조화와 위계화를 위한 작

업이 된다.

넷째, 지식의 지형과 변화는 지식의 탄생, 전파와 수용,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력과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식의 이데올로기성이나 지식 권력을 연구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15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지식 지형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선행 연구에 해당한다. 연구 방법론의 차원에서 제시한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지식의 대분류 준거 가운데 '종교적 지식', '형이상학적 지식', '실증적 지식'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시대별 문헌 정리를 진행해 가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다음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교육부,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2001, pp. 28-29.

한국신문연구소,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12.15.

2. 논문

강인태, 「지식지도 설계 및 개발 방법론-유형, 지식 배치 알고리듬 및 개인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 10-25.

김부용, 「미셸 푸코의 경험과 지식」, 서강대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33, 서강대 철학연구소, 2013, pp. 229-259.

김수영, 「중국 근대 지식지형의 형성과 패러다임 – 전문지식과 전문가 집단의 탄생을 중심으로 –」,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71, 2011, pp. 215-246.

김옥희 · 남태우, 「인식론적 주제 관점에서의 지식과 문헌 분류의 전개고」,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 1994, pp.

133–136.
김 원, 「1987년 이후 학문 사상 지형의 변화–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2007, pp. 488–520.
김일권, 「조선 후기 치농과 음식의 필용 지식 전개로서 『거가필용』과 『산림경제』의 지식 지형 고찰」, 한국농업사학회, 『농업사연구』 15, 2016, pp. 19–48.
김정경, 『고전문학의 지식체계 형성에 대한 담론적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 10–62.
박옥화, 「지식 분류의 역사적 고찰」,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 1992, pp. 25–45.
박진환, 「마르크스의 지식론에 관한 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 28, 1989, pp. 157–167.
박치완, 「글로컬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새로운 지형도」, 서강대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38, 2014, pp. 149–184.
설성수,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분야 분류」, 한국사전학회, 『한국사전학』 22, 2013, pp. 72–103.
손윤락,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와 그 의의」,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서양고대사연구』 46, 2016, pp. 69–94.
송현정, 「국어 지식교육과 사고력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24, 2004, pp. 67–95.
양희정, 「인지 발달 단계와 범주 지식 수준에 따른 범주화 분류 기준의 발달적 변화」,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32–52.
예성호, 「중국의 한국학 지식 지형도 연구」,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17, pp. 101–115.
유현정, 「문화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한성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 2–78.
이명규, 「지식 분류에 대한 동서양의 비교 – 베이컨의 분류와 사고전서를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1(2), 2000, pp. 25–38.
이재민, 「지식 생산의 구조와 이론사회학의 위상」,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 이론』 19, 2011, pp. 89–144.
이재봉, 「근대의 지식 체계와 문학의 위치」,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52, 2009, pp. 149–183.
이정우 · 심경호 · 이상욱, 「분류의 다양성과 원리–지식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철학회, 『과학철학』 17(3), 2014, pp. 69-106.
이혜민,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백과사전식 지식 분류」,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37, 2016, pp. 61-101.
정연경, 「학문 문류, 문헌 분류, 연구 분류에 관한 비교 분석」, 이대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총』 3, 1999, pp. 145-195.
조성산, 「19세기 조선의 지식인 지형」,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117, 2016, pp. 119-152.
최문식 외, 「한국 고전번역원의 성과물 분류 체계와 특수 고전 번역 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번역학회, 『고전번역연구』 7, 2016, pp. 139-176.
허재영, 「지식 생산과 전파 수용에 따른 지식 권력 연구 방법론」,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66, 2018, pp. 177-204.

3. 저서・번역서

김상환, 『사물의 분류와 지식의 탄생-동서 사유의 교차와 수렴』, 이학사, 2014, pp. 20-40.
김태수, 『분류의 이해』,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 10.
김필동, 「지식 변동의 사회사-그 과제와 방법」, 한국사회사학회 엮음, 『지식 변동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2003, pp. 13-41.
남태우, 『지식의 구조1』, 한국도서관협회, 2015, pp. 10-430.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지식 교류와 역사 기억』,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 8-150.
설성수, 『지식활동 분류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 출판부, 2000, pp. 31-51.
양재한, 『문헌 분류의 이해와 실제』. 태일사, 2014, pp. 2-3.
이상오, 『지식의 탄생』, 한국문화사, 2016, pp. 1-702.
이을상, 「막스 셸러의 지식 사회학: 그 철학적 토대와 전개」, 『지식의 형태와 사회1』, 한길사, 2011, pp. 7-38.
전태국, 『지식 사회학-지배・이데올로기・지식인』, 사회문제연구소, 2001, pp. 3-528.
정연경, 『지식정보 분류론』,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17, pp. 3-28.
정영미, 『지식구조론』, 한국도서관협회, 1997, pp. 3-47.
구가 가쓰토시, 김성민 옮김, 『지식의 분류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9, pp. 1-89.
리틀 존・김흥규 역, 『커뮤니케이션이론』, 나남출판, 1996, pp. 1-30.
에릭 J 헌터, 박지영 옮김, 『분류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5, pp. 3-32.
카를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김영사, 2012, pp. 1-627.

프랜시스 베이컨 저, 진석용 옮김, 『신기관』, 한길사, 2001, pp. 13-347.
피터 버크 지음, 박광식 옮김,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 현실문화연구, 2006, pp. 13-431.
헌터 에릭, 박지영 역, 『분류란 무엇인가-지식의 구조화와 검색에 관한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5, pp. 13-19.

(**투고일**: 2018. 5. 21 **심사완료일**: 2018. 6. 18 **게재확정일**: 2018. 6. 21)

김경남
소속: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번지 상경관 527호 일본연구소 HK+ 연구실
전화번호: 031-8005-2499
전자우편: surhera@hanmail.net

[Abstract]

The Category of Knowledge and It's Humanities Research Methodology of Topography Knowledge

Kim, Kyungnam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the category or type of knowledge, and I study in the humanities methodology of topography knowledge. In general, knowledge is determine as "the psychological result of perception and learning and reasoning." In some cases, this term means the theory or law of positive science. I think that the methodology is recognition attitude.

I am interested in the discussion of the knowledge structure or system. This problem has been mostly debated by many scholars and there are numerous theories.

I think that the categorization of knowledge work is not unified. I suggest some principals of knowledge classification, clear conception of term, criteria and topographical change of knowledge. I guess this discussion is due to the study of the Knowledge topography and it's influence.

Key words: knowledge, classification, system, humanities, attitude, knowledge topography, influence